

‘전지적 참견 시점’ · ‘선다방’ 참견의 미덕을 말하다



소녀 감성 충만



연락과 까지키는 명제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 따위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

하거나 이래 저래라 함’ 참견의 사회적 정이다. 지금까지 참견은 긍정적인 뜻보다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착한 참견’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새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MBC ‘전지적 참견 시점’과 tvN ‘선다방’이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프로그램 제목처럼 참견 고수들의 시시콜콜한 참견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이영자, 유병재 두 사람의 리얼한 일상이 공개되면 전현무, 송은이, 양세형 패널들이 참견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들도 돌의 일상을 분석하며 한 마디씩 거른다.

4월 7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5회에서는 유병재 성격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과 이영자의 음식 예찬이 전파를 뒀다. 유병재는 절친한 김수용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떠돌이 여행자는 대화와 오랜 침묵으로 패널들을 당황하게 했다. 전현무는 “여휴 불편해”라고 말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국악인 남상일은 “답답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이상은은 “두 분 유대감이 상당히 높다. 유병재 씨의 저런 침묵이 좋은 거다”며 “두 사람이 서로 행동을 따라하는 미러링 현상이 상호 유대감을 증명해준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의 말처럼 유병재와 김수용은 서로의 행동

‘착한 참견’으로 시청자 마음 사로잡는 예능 프로그램 고수들 · 다방 지기들 시청자 욕구 대신 만족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이상은의 참견은 유병재에 대한 참견 고수들의 이해를 이끌어냈다.

이영자는 매니저에게 매일 추천 메뉴를 소개하고 먹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녀는 “휴게소에 가면 꼭 소시지와 떡이 함께 끼워져 있는 ‘소떡소떡’을 먹어야 한다”며 “먹을 때는 떡과 소시지를 반드시 함께 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자의 세세한 참견은 휴게소 매출 증가를 이뤘고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샀다. 전현무는 방송에 앞서 “이영자의 휴게소 방문 이후 음식 판매량이 200% 이상 늘었다고 한다”고 밝혀 좌중을 놀라게 했다. 시청자들 역시 방송 이후 “방송 보는데 정말 먹고 싶었어요”, “식사 전 음식에 대한 맛갈스러운 표현은 최고”, “너무 재밌어요. 집에서 TV로 산책하듯 먹는 기분” 등 이영자의 참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다방’은 이적, 유인나, 양세형, 그룹 SF9 멤버 로운 등 연예인 다방 지기들이 맞선 전문 다방을 운영하고, 맞선 남녀에게 조언을 더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 8일 방송된 ‘선

있는 맞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맞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윤희유 역할을 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과 ‘선다방’ 모두 착한 참견을 통해 방송에 재미를 더하고,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나쁜 참견과 착한 참견은 믿음과 배려의 여부에 따라 갈린다. 나쁜 참견은 상대를 못 미더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이 나쁜 참견을 만든다. 반면 착한 참견은 상대를 향한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착한 참견을 만든다. 착한 참견은 곧 공감으로 이어진다. ‘전지적 참견 시점’과 ‘선다방’이 시청자에게 호평받는 이유다.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MBC ‘나 혼자 산다’ 등 지금까지 관찰예능이 예능가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더 이상 시청자들은 관찰민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한 마디 말이라도 보태고 싶어 한다.

‘전지적 참견 시점’과 ‘선다방’은 참견 고수들과 다방 지기들의 착한 참견을 통해 시청자의 욕구를 대신 만족시켜주고 있다. 과연 두 프로그램 같은 ‘참견예능’이 ‘관찰예능’의 뒤를 이어 예능가를 점령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범인은 바로 너’, 허당 탐정단 7인 포스터



유재석 새 예능 ‘범인은 바로 너!’ 포스터가 공개됐다. 넷플릭스의 새로운 한국 오리지널 ‘범인은 바로 너!’는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7명의 허당 탐정단이 매 에피소드마다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어나가는 추리 예능이다. 넷플릭스와 X엔, 런닝맨, 패밀리가 떴다 등 히트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조효진 PD, 장혁재 PD, 김주형 PD 등 스태프 제작진을 보유한 컴퍼니 상상이 의기투합한 ‘범인은 바로 너!’가 7인 허당 탐정단의 웃음과 긴장 넘치는 추리 활약을 예고하는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쓰러져 있는 한 의문의 인물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놀라고 있는 탐정단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담아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예상

지 못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7인의 허당 탐정단 유재석, 안재욱, 김종민, 이광수, 박민영, 세훈(EXO), 세정(구구단)의 모습과 함께 ‘허당 탐정단’의 전혀 새로운 추리 예능이라는 카피가 어우러진 이번 포스터는 예측불허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어낼 이들의 흥미진진한 활약을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추리 예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국민 MC 유재석을 필두로 노련한 입담 능력자 안재욱, 예능 베테랑 이광수와 이광수 여기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능 새내기 박민영, 세훈, 세정까지 7인의 조합을 처음 공개한 이번 포스터는 최초의 한국 예능 넷플릭스 오리지널 ‘범인은 바로 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다.

매주 2편의 에피소드를 5주에 걸쳐 공개,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을 만날 ‘범인은 바로 너!’는 7인의 탐정단은 물론 매회마다 새로운 특별 출연진의 합류로 다채로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각종 미스터리 사건을 풀어가며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담긴 흥미진진한 전개와 유머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넷플릭스 오리지널 ‘범인은 바로 너!’는 오는 5월 4일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의 1억 1천 7백만 명의 회원에게 공개된다.

‘라이브’ 배성우 분노도, 연기도 폭발



배우 배성우 열연이 안방극장을 장악했다. 지난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Live)’(극본 노희경 연출 김규태)

블랙핑크 ‘붐바야’ MV 3억뷰 돌파...“데뷔곡 K팝 최초”

블랙핑크의 ‘붐바야’ 뮤직비디오가 데뷔곡 최초로 3억뷰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2018년 8월 8일 공개된 ‘붐바야’는 9일 오전 1시 3억뷰를 넘어섰다. 이를 기념해 YG엔터테인먼트는 9일 오전 8시, 공식 블로그에 특별 축전을 공개했다.

‘붐바야’는 공개 5일 만에 1천 만뷰 돌파, 공개 177일 만에 1억뷰를 넘어선 쾌속 기록을 지니고 있다.

특히 데뷔곡 역사상 최초로 2억 뷰를 돌파하는데 이어 3억뷰까지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데뷔곡으로 이 같이 높은 조회수를 올린 K팝 곡은 블랙핑크의 ‘붐바야’가 유일무이하다.

‘붐바야’는 ‘휘파람’과 함께 블랙핑크의 등장을 알린 데뷔 싱글 ‘SQUARE ONE’의 더블 타이틀 곡이다. 강렬한 드럼 비트와 독특한 신스 시운드가 인상적이며 ‘오빠’를

외치는 후크 부분이 강한 중독성을 지닌다. 신인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차트’ 1위에 오른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는 등 글로벌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있다.

블랙핑크는 YG에서 7년만에 선보인 걸그룹답게 뛰어난 실력과 음악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록 제조기’, ‘조회수 요정’이

라 불리는 블랙핑크의 명성답게 뮤직비디오 조회수 기록 행진은 현재진행형이다.

데뷔 이후 발표한 5편의 뮤직비디오 ‘휘파람’, ‘붐바야’, ‘불장난’, ‘마지막처럼’, ‘STAY’ 모두 역대 조회수를 돌파한 기록을 보유했다.

이중 ‘마지막처럼’ 역시 3억뷰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음악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는 최근 새 앨범 녹음을 완료하고 국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음력 2월 25일)

<p>▶ 쥐 자녀들과 대화야 필요할 때다. 사, 오, 자 성씨에게서 운하게 하면 내 마음도 불편할 듯. 낮에 문단속이 필요하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2, 8, 9월생 동업은 시기상조이니 생각하지 말라. 내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라.</p>	<p>▶ 용 금전 거래는 골치만 아프고, 우정도 멀어지게 만든다. 애정은 서서히 접어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눈에 빠질까 염려된다. 가, 오, 사, 자 성씨 서쪽과 남쪽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다.</p>	<p>▶ 원숭이 무리하게 사들인 것을 다시 내놓으니 매매가 안 돼 애매운다. 1, 2, 9월생 남쪽 사람과 상의하라. 뒷사람과 협력하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애정적으로 너무 연연하면 직장과 본인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듯. 동쪽이 길하다.</p>
<p>▶ 돼지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 11, 12월생 취업에 자신이 없다면 새로운 마음 갖고 추진하라. 쥐, 토끼, 닭띠가 인생 선배로서 어려움을 덜어 줄 테니 친분을 가지라. 늦은 시간 외출은 좋지 못 하다.</p>	<p>▶ 뱀 4, 5, 11월생은 지나치게 친절히 하면서 접근하는 자를 피해라.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 내지 말고, 지혜롭게 승부를 걸라. 동보다 하나로 만족할 필요가 있다.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 바, 사 성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에게 큰 관심을 가지라.</p>	<p>▶ 닭 바, 오, 자 성씨는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해야 구설을 막을 수 있다. 미혼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성 사이에는 항상 주의해야 마음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배갓머리는 남쪽으로 향하지 않아야 가정의 우환을 막을 수 있다.</p>
<p>▶ 호랑이 2, 3, 9, 11월생은 가족끼리 재물을 논하지 말라. 가진 것까지 잃을 수 있다. 오늘 내 모든 것을 시험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성격은 차분하게 하고, 말은 적게 하라. 가, 바, 자 성씨와 의논하는 것이 상책이다.</p>	<p>▶ 말 2, 8, 9월생 내 능력을 발휘해 웃음꽃을 피울 것이다. 가, 오, 자 성씨 자녀와 애정 관계의 난관을 잘 풀어 원망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라. 애정은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기본 좋게 핑크빛 하루를 보낼 수 있다.</p>	<p>▶ 개 바, 오, 자, 흥 성씨는 혼자서는 풀리지 않는다. 쥐, 말, 양, 닭띠와 상의하면 쉽게 풀릴 듯.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절망적인 판단은 시기상조임을 알고 용기 내라. 남이 아닌 연인에게 냉정히 대하면 좋지 않다. 따뜻하게 대하라. 북쪽과 동쪽이 길하다.</p>
<p>▶ 토끼 소, 용, 돼지띠 마음을 읽어야 할 때다.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라. 뒤를 돌아보며 나를 반성하는 것이 좋겠다. 남의 불만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시인하며 사입도 분별해야 한다. 1, 6, 7월생 욕심을 버리고 추진하면 크게 이루겠다.</p>	<p>▶ 양 가, 자, 흥 성씨 용기가 필요할 때다. 지금껏 끌어오던 일이 안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힘이 약하면 동업도 좋 겠다. 뱀, 돼지띠는 피해야 할 듯. 1, 2, 10월생 미혼 여성은 연인으로 애매운 토끼, 닭띠가 힘이 돼줄 듯.</p>	<p>▶ 돼지 맵고 끈을 확실히 해야 할 때다. 2, 8, 12월생 과욕은 금물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좋다. 연행을 조심하라. 망신수가 있다. 가, 바, 오 성씨는 토끼, 뱀, 닭띠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 지 생각해 보라.</p>